

보도시점

2023. 6. 7.(수) 14:00

배포 2023. 6. 7.(수)

서울에 수소 공항버스 도입...민관 업무협약 체결

- 환경부, 서울시 등과 수소 시내·공항버스 전환 업무협약 체결

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6월 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, 에스케이 이앤에스(SK E&S), 현대자동차,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서울시의 공항버스와 시내버스,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이번 협약은 서울시에 2026년까지 총 1,300대의 수소버스를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, 이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공항버스 300여 대와 서울시 시내버스 및 민간기업 통근버스 1,000여 대를 포함한 목표다.

아울러 수소버스의 편리한 충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까지 서울시내 수소버스 전용 수소충전소 5곳을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.

특히 현재 운행 중인 451대의 경유 공항버스 중 300여 대가 앞으로 수소버스로 전환될 경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탄소중립 국가로의 이행, 친환경 국가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환경부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 5월 4일 서울시를 포함한 12개 지자체, 7개 민간기업, 7개 운수사와 함께 민간기업의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. 이번 서울시의 수소버스 전환 업무협약은 수소버스가 시내·통근·공항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“수소 공항버스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노력을 외국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, “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의 수소버스 보급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서울 수소 공항· 시내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요. 끝.

담당 부서	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	책임자	과 장	류필무 (044-201-6880)
		담당자	사무관	김유란 (044-201-6881)



1. 추진배경

- 업무협약으로 본격적인 수소 시내·공항·통근버스 보급을 확대하고, 친환경 서울 이미지 확산 및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정책 홍보

2. 업무협약식 개요

- (협약명)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업무협약
- (時/所) '23. 6. 7.(수), 14:00~14:45 /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
- (협약기관) 환경부, 서울/시, 현대차, SK E&S, ^{운수사}티맵모빌리티
- (협약내용) ①2026년까지 서울시에 수소버스 1,300대 보급(공항버스 300여대 포함), ③'26년까지 수소버스 전용충전소 5개소 확충
- (세부일정)

시간	내용
14:00~14:08 (08')	▶주요 내빈 사전 환담
14:08~14:10 (02')	▶개회 및 참석자 소개
14:10~14:25 (15')	▶인사말씀
14:25~14:27 (02')	▶추진경과 및 업무협약 내용 발표
14:27~14:35 (08')	▶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
14:35~14:38 (03')	▶시청 4번출구로 이동
14:48~14:45 (07')	▶수소 공항버스 시승 및 행사종료